

문학 창작 영재의 판별 가능성 연구*

박소영**·허승희***

차 례

- | | |
|------------------------------|-----------------------|
| I. 서론 | III. 시 창작 수업의 계획 및 결과 |
| II. 체크리스트 판별 및 문학 성적과의 비교·분석 | IV. 인터뷰 계획 및 결과 |
| | V. 판별 가능성에 대한 제언 |

국문초록

영재를 정의하거나 판별할 때에 영재성이라는 것은 선천적인 것일 수도 있고 후천적인 것일 수도 있으며, 어떤 영재성에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영재 판별 방법은 달라진다. 그러나 국어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추천받아 또다시 지필평가를 통해 문학 창작 영재를 판별하는 현재의 방법으로는, 잠재능력이나 고유성을 지닌 영재를 판별해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현재의 영재 판별 과정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 대부분은 문학 창작 영재로서의 비전에 대해서 회의적이며, 후속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문학 창작 영재 판별 방법으로는 문학 창작 영재의

* 이 논문은 2010년도 부산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제 1 저자 : 다대고등학교 교사

*** 교신 저자 : 부산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지속적 발전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문학 창작 영재에 관한 연구는 매우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국내 논문으로는 참고할 만한 논문이 거의 없다. 또한 지금까지의 모든 연구들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하다.

교육은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는 일이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문학 창작 영재도 이점에서 예외가 아니며, 이들에게도 개인의 뛰어난 자질과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주어져야 한다. 이번 연구는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문학 창작 영재의 판별 가능성과 그 지속성에 관해 연구한 결과물이다. 그 검증까지는 충분히 이루지 못하였지만, 연구를 통해 문학 창작 영재의 발견과 성장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이후 문학 창작 영재 교육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주제어 : 영재 교육, 문학 영재 교육, 문학 창작 영재 교육, 영재 판별 가능성, 문학 창작 영재 판별

I. 서론

1. 선행 연구 검토

영재를 정의하거나 판별¹⁾할 때에 영재성이라는 것은 선천적인 것일 수도 있고 후천적인 것일 수도 있다. 어떤 영재성에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영재 판별 방법은 달라질 것이다. 이는 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

1) 본고에서는 ‘판별’을 영재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진단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질 수 있으며, 판별하고자 하는 영재성의 영역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국어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추천받아 또다시 지필평가를 통해 문학 창작 영재를 판별하는 현재의 방법으로는, 잠재능력이나 고유성을 지닌 영재를 판별해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²⁾ 특히 문학 창작 영재의 영재성은 개인의 자질이 ‘언어’라는 산출물을 통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판별이 더욱 어려워진다.

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지필검사를 통한 판별 방법이나 단계적인 영재 판별 프로그램을 통한 판별 과정에서나 문학 창작 영재의 지속적 발전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영재 판별 과정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 대부분은 문학 창작 영재로서의 비전에 대해서 회의적이며, 후속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³⁾ 현재로서는 수학이나 과학 영재와 달리 문학 창작 영재 부분에서 지속 가능한 영재를 판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문학 창작 영재성에 대한 정의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문학 창작 영재에 관한 연구는 매우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⁴⁾ 문학 창작 영재성을 정의하기 위해 참고할 만한 논문으로 장창영의 「언어-문학영재와 시적 언어 능력」 정도가 있을 뿐

-
- 2) 만약 우리의 현실에서 지적인 영재와 창의적인 영재를 구별하면서 영재를 지능 지수가 1~5%에 해당하는 학생을 중심으로 한정한다면, 창의적인 영재의 대부분은 영재로 판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경화외, 「영재의 지능, 창의성, 자아 개념간의 관계 분석」, 『영재와 영재교육』 6권, 2007, 149쪽.
- 3) 우리 사회에서 언어-문학 영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지 못한 이유는 진로나 학업 이후의 불투명성이 존재한다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다. 장창영 「언어-문학영재와 시적 언어 능력」, 한국언어문학 제68호, 2009, 310쪽.
- 4) 범위를 넓혀 문학 영재의 판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윤희원, 「문학 영재 판별에 관한 기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3. 최지현, 「언어문학영재성에 대한 정략적 판별 근거」, 『문학교육학』 27호, 2008. 정도가 있다. 또한 학계에서 문학영재나 문학 창작 영재에 관하여 합의된 정의는 없으며, 현재까지의 연구에서는 윤희원이나 최지현의 연구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문학 영재’, 또는 ‘언어-문학 영재’ 정도로 통칭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문학 창작 영재는 문학 영재 중에서도 문학적 표현에 재능이 있는 학생을 말한다.

이다.⁵⁾ 장창영의 논문에서 말하는 시적 언어 능력은 산문에서 중시하는 서사능력과 구별하여 정의되는 개념으로 상상력, 창의력, 감수성, 직관력, 형상화 능력 등을 포함한다. 물론 장창영은 시적 언어 능력을 시 창작 능력과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이 연구는 문학 창작 능력을 정의하는 데에 일면 도움을 준다.

필자의 연구와 가장 근접한 연구로 현상길의 연구가 있다.⁶⁾ 현상길은 문예창작 영재 판별 도구 개발을 위해 제작한 체크리스트로 서울 시내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현상길의 연구는 영재 판별을 양적으로만 접근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1차 선발 대상자를 국어 성적 우수자로만 제한했으며, 매 단계마다 상위수준을 정하여 인원수를 제한하였다. 그러면서 동시에 본인의 연구처럼 퍼센트로 영재를 제한하며, 지필평가에만 의존하는 판별 검사는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또한 이상의 모든 연구들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하다.

2. 연구의 필요성 및 방법

영재 판별 도구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연구자들은 대체로 3단계 판별을 권장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인문·사회 영재 판별 도구 개발 연구」(구자역, 장영숙, 김주현 : 2001)에 의하면, 1차 판별은 동료, 교사나 학부모의 추천, 지능 검사의 언어 영역 점수, 국어 학업 성취도 검사에 의해서 선별하며, 선별된 대상자에 한해 2차 판별을 하는데, 2차 판별에서는 전문기관에서 개발한 표준화된 언어 영재 판별 검사, 언어 영재 행동특성 검사, 자아 개념 검사, 창의성 검사를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 3차 판별에서는 2차 판별 단계에서 선정된 학생들을 대상으

5) 장창영, 「언어-문학영재와 시적 언어 능력」, 한국언어문학 제68호, 2009, 309-338쪽.

6) 현상길, 「문예 창작 영재 판별 도구 개발」, 서울교육, 여름호, 2005, 116-126쪽.

로 하여 다시 언어 영역에 대한 수행평가를 하거나, 언어 영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과정을 관찰하여 언어 영역에서 매우 뛰어난 능력을 지닌 학생들을 판별하게 된다. 현상길(2005)도 문예 창작 영재 판별을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 1차 : 지능 검사의 언어 영역 점수, 국어 학업 성취도, 교사/학부모의 추천.
- 2차 : 언어 영재 판별 검사, 언어 영재 행동 특성 검사지, 교사의 추천.
- 3차 : 고난도의 창의적인 과제 수행 관찰 및 평가, 캠프 면접, 언어 영재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판별.

그러나 이러한 지침에 따라 실제 영재교육원 등에서는 국어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추천받아 지필 평가를 통해 문학 창작 영재를 선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재의 방식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지능 검사의 언어 영역 점수, 국어 학업 성취도, 교사/학부모의 추천 등으로 1차 대상자를 선발하면 잠재력 있는 문학 창작 영재들의 다수가 선발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걸으로 드러나지 않은 시적 감수성이 있지만, 국어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 1차 대상자 선발에서 탈락하게 될 것이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문학 영재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수학이나 과학 영재에 비하여 당장에 드러나는 가시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개인이 가진 자질을 개발하고 사회 국가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야 한다는 점에서는 수학, 과학, 예술 영재나 문학 영재가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 영재에 관한 연구는 아직 판별 도구 제작 자체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판별 도구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교육의 현장에서 문학 영재나 문학 창작 영재를 발굴하려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문학영재가 발견되고 그들에게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최지현(2008)은 언어문학영재성을 ‘인문적 가치에 기반한 창조적 담론을 생산해 낼 수 있게 하는 창의적이고 통합적인 사고 능력 및 성향’으로 정의했다. 본고의 연구 대상은 이보다 좁은 개념의 문학 창작 영재이며, 이는 ‘문학적 재능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문학 창작에 뛰어난 적성과 소질을 보이는 사람’이다. 강승희(2001)의 표현에 따르면 창작 영재이며, 현상길(2005)의 경우처럼 문예 창작 영재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본고는 문학 창작 영재의 영재성에 더욱 구체적으로 접근하여, 실제 교육의 현장에서 문학 창작 영재의 판별 가능성을 탐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결합한 현장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특이할 만한 점은 1차 판별 기준으로 기존의 판별 기준이었던 국어 성적을 선택하지 않고 문학 창작 영재 판별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학 성적이 문학 창작 영재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면, 체크리스트와 이들은 얼마만큼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상의 양적 연구의 결과 뿐 아니라, 연구 대상자들의 평소 문학 창작에 대한 관심도나 과제물 수행 태도 등도 관찰하였으며, 실제 문학 창작 관련 결과물과 개별 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문학 창작 영재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II. 체크리스트 판별 및 문학 성적과의 비교·분석

본 연구는 부산 시내에 소재한 인문계 고등학교 인문계열 여학생 163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지역적 특성과 환경적 배경은 대략 다음과 같다. 남녀 공학 인문계 고등학교로 남학생과 여학생을 분리하여 학급을

구성하고 있으며, 여학생 수(65%)가 남학생 수(35%)보다 높다. 2,3학년의 경우 인문계열 학급 비율(64%)이 높아, 전반적으로 인문 계열 과목에 대한 흥미가 높고, 수리 영역에 대한 흥미 및 동기 부여가 낮은 편이다.

1. 체크리스트 판별 결과와 해석

먼저 본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된 문학 창작 영재 판별 체크리스트⁷⁾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도표1> 문학 창작 영재 판별 체크리스트

번호	내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상징, 역설, 비유법 등 문학적 표현법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2	말의 특별한 특징(두운, 의인화, 유음화 등)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3	또래의 다른 친구들은 발견하지 못하는 문학 작품의 깊은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					
4	시각, 청각 등 심상을 활용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5	특별한 형용사와 부사를 자주 사용한다.					
6	문학 영역에서 창의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독창적인 글을 쓴다.					
7	그림(시각적 이미지)을 보거나 음악(청각적 이미지)을 듣고 이야기를 만들어 글로 옮기는 것을 잘 한다.					
8	상세하게 묘사하거나 개성적으로 묘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9	시나 소설 등을 짓는 일이 나에게서는 어렵지가 않다. (다른 사람들보다 잘 한다.)					

7) 줄고 박소영, 「문학 창작 영재의 판별과 선발 과정 연구」, 2008, 부산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석사학위 논문에서 제시

10	시를 소설로 바꾸거나 소설을 희곡이나 시나리오로 바꾸는 등의 일을 잘 할 수 있다.					
11	뛰든 이야기로 꾸며내는 일이 즐겁다.					
12	뭔가 새로운 것을 창작해 보고 싶은 열망이 많다.					
13	같은 사물을 보고도 남들과 다른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는 등 문학적 서정성이 풍부하다.					
14	시나 소설 등 문학 작품을 읽고 감동을 받는 경우가 자주 있다.					
15	혼자서 시, 소설, 희곡, 시나리오 등을 짓는 습관을 하고 있다.					
16	철학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종종 실존에 대한 고민을 하곤 한다.					
17	시, 소설, 수필 같은 문학 작품을 쓰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18	각종 문예 관련 백일장 대회에서 상을 타 본 적이 있다.					
19	문학 관련 서적을 오랜 시간 읽을 수 있으며, 문예 창작에 오랜 시간 몰두할 수 있다.					
20	장래 희망이 소설가, 시인, 국어 교사, 대학의 문학 관련 전공 교수 등이다.					

이 체크리스트는 20개의 항목마다 ‘전혀 아니다~매우 그렇다’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1~3번은 문학적 이해능력, 4~10번은 문학적 표현 능력, 11~20번은 문학적 습관 및 태도와 관련된 내용이다. 영재아의 지적 특성과 정의적 특성 모두를 고려하여 제작한 것이지만, 대부분의 체크리스트는 영재아의 지적 측면보다는 정의적 측면의 특성을 판단하는 데에 적합하다. 실제 학생들에게는 각각을 ‘1~5점’으로 배점하여 계산하도록 하였다. 최고점은 100점이며, 최저점은 20점이다. 다음은 그 결과이다.

<도표2> 학급별 급간에 따른 인원수 비교

인원수(명)	1반	2반	3반	4반	총계(명)
급간 구분(점)					
80이상	0	0	0	3	3
75이상~80미만	2	1	2	1	6

70이상~75미만	1	2	0	2	5
65이상~70미만	2	3	2	5	12
60이상~65미만	6	3	2	2	13
55이상~60미만	8	13	9	4	34
50이상~55미만	5	5	3	3	16
50미만	17	13	23	22	75
총계(명)	41	40	40	42	163

총 163명의 학생, 학급수로 4학급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도표1>을 활용하여 학기 초에 체크리스트 표시 작업을 마쳤다. 각 반별 급간 비교표를 보면, 최고점에 큰 차이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학생이 분포하는 급간은 55~60점 사이이다.

2. 선발된 상위 14명의 학생들

집단에서 영재를 선발할 때에 양적 기준으로는 대개 상위 3~5% 정도로 제한한다.⁸⁾ 그러나 이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영재로 선발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한 인원을 두지 않고, 절대적 기준을 적용해 체크리스트에서 점수가 70점 이상인 학생은 모두 1차적으로 영재성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대상으로 가정하였다.⁹⁾ 선발된 학생은 총 14명으로 양적으로 계산하면, 163명

- 8) 이는 영재성에 관한 접근 중 퍼센트 접근법으로서, 학교나 지역의 고정된 비율을 영재라고 보는 관점이다. 이때의 영재는 전체 아동 중 3~5%를 통념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Renzulli(The Three-ring conception of giftedness:A developmental model for creativity productivity. In R. J. Sternberg and J. E. Davidson, Conceptions of giftedness.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는 1986년 연구에서 기존의 영재성에 관한 정의를 비판하며, 영재의 범위를 15~20%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영재의 범위를 확대하였을 때, 영재교육의 기회를 많은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계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연구는 영재 선별에서의 퍼센트 접근법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가드너의 다중 지능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영재 교육이 소수만을 위한 교육적 특혜라고 보는 입장은 필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 9) 체크리스트 판별법은 영재 판별법 중 일종의 요소별 측정에 해당하는 것인데 요

의 9%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들을 서술의 편의상 [학생1]~[학생14]로 통칭한다.

<도표3> 체크리스트 결과로 선발된 학생들

대상자	점수	대상자	점수
[학생1]	79	[학생8]	77
[학생2]	70	[학생9]	72
[학생3]	78	[학생10]	82
[학생4]	79	[학생11]	75
[학생5]	73	[학생12]	82
[학생6]	79	[학생13]	82
[학생7]	72	[학생14]	73

이상의 총 14명의 학생들이 체크리스트 판별 결과 상위 점수를 받은 아이들이다. 최고점은 [학생10], [학생12], [학생13]으로 이들은 모두 82점을 기록했다. 그렇지만, 이 아이들을 모두 문학 영재로 볼 수 없으며, 문학 창작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고 볼 수 없다. 문학 성적이 영재 판별에 기준이 될 수 있다면, 문학 지필고사와 체크리스트 결과는 어느 정도의 상관성이 있을지에 대해 양적 결과물로서 문학 지필고사 성적과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3. 문학 성적과 비교·분석

다음은 상위 14명의 1차 체크리스트 판별 결과와 문학 지필고사 점수를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소별 측정에서는 심리적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상의 결과를 객관적 수치로서 완전히 믿을 수는 없다. 만약 체크리스트에서 고득점을 한 학생이 후속 판별 과정을 통해 실제 문학 창작 영재로서의 가능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최종 판별된다면, 문학 창작 영재의 경우 정의적인 요인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도표4〉 문학 지필고사와 비교 결과

구분 대상자	체크리스트 점수	중간고사 96.4점 만점	기말고사 100점 만점	지필고사합 196.4점 만점
[학생1]	79	44.70	60.30	105.00
[학생2]	70	52.30	44.70	97.00
[학생3]	78	73.90	83.20	157.1
[학생4]	79	85.90	82.90	168.80
[학생5]	73	77.40	71.00	148.4
[학생6]	79	64.20	72.10	136.30
[학생7]	72	75.40	83.10	158.50
[학생8]	77	73.50	76.80	150.30
[학생9]	72	72.30	64.70	137.00
[학생10]	82	92.90	70.10	163.00
[학생11]	75	63.00	68.10	131.10
[학생12]	82	37.60	54.60	92.20
[학생13]	82	50.00	77.90	127.90
[학생14]	73	44.80	60.30	105.10
평균	76.64	64.85	69.27	134.12

14명의 학생 중 [학생4], [학생10] 등 총 2명이 체크리스트에 이어 지필고사에서도 같은 계열 전체학생 기준 상위 1등급(4%이내) 안에 드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 상위 2등급(11%)으로 기준을 잡으면, 학생 [학생3], [학생7]까지 포함된다. 14명의 학생 중 대다수가 문학 지필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으며, 체크리스트 점수는 30점인데 지필고사 성적은 합계 155.8점, 172.1점인 학생도 발견되었다.¹⁰⁾ 그러나 수행평가 점수와 비교했을 때에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10) 이들은 체크리스트 점수는 높는데 지필고사 성적은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 [학생1], [학생2], [학생12]와는 대조되는 경우이다.

<도표5> 문학 지필고사수행평가와 비교 결과

구분 대상자	체크리스트 점수	지필고사합 196.4점 만점	수행 합 200점 만점
[학생1]	79	105.00	140.00
[학생2]	70	97.00	170.00
[학생3]	78	157.1	185.00
[학생4]	79	168.80	180.00
[학생5]	73	148.4	200
[학생6]	79	136.30	160.00
[학생7]	72	158.50	155.00
[학생8]	77	150.30	185.00
[학생9]	72	137.00	180.00
[학생10]	82	163.00	185.00
[학생11]	75	131.10	180.00
[학생12]	82	92.20	155.00
[학생13]	82	127.90	150.00
[학생14]	73	105.10	185.00
평균	76.64	134.12	172.14

앞선 지필고사와는 달리 수행평가에서는 상위 1,2등급에 해당할 만한 고득점을 한 학생은 총 8명이나 나왔다. 14명의 학생 중 수행평가 성적과 함께 지필고사 성적도 우수한 학생은 [학생3], [학생4], [학생10] 단 3명이다. 지필고사와 수행평가 모두 중요한 기준이 된다면, 현재로서 문학 창작 영재로서의 가능성을 지닌 학생은 이상의 세 명이다. 그러나 체크리스트와 문학 성적 점수만으로는 문학 창작 영재로서의 가능성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지필고사와 수행평가를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였지만, 이들도 양적 결과물로서의 비교 대상이었을 뿐, 언어로 산출된 이들의 실제 문학 창작 결과물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선 학교의 지필고사 성적은 문학 창작 영재를 판별하는 기준으로서는 적합하

지 않으며¹¹⁾, 수행평가 성적이 문학 창작 영재로서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면, 체크리스트는 이보다 앞서 이들을 예측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Ⅲ. 시 창작 수업의 계획 및 결과

양적 접근으로 대상을 연구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수치로 나타나지 않은 중요하면서도 꼭 필요한 사실들을 놓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생들의 문학 수업 시간의 과제 수행에 대한 흥미 정도와 그 성취도, 창작물의 수준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평가하였다. 이번 연구는 문학 창작 영재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대상자에게 특별한 조작적 변인을 가한 연구는 아니며, 문학 창작 영역에서 재능이나 능력의 발현 정도를 관찰하고 평가하는 데에 의의를 두었다.

1. 시 창작 수업 계획

산출물 평가는 언어문학영재성의 실체적 측면을 직접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산출물 평가는 시나 에세이, 서사물 등을 직접 평가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문학적 담화와 관련된 산출물로 시를 선택하였으며, 문학 창작에 재능을 지닌 학생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았다.¹²⁾ 수업

11) 이는 즐고(박소영:2008)에서도 확인되었다. 문학 영재성 중에서도 시적 언어능력은 학업성취도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강승희·김정섭(2003), 장창영(2009)에서도 밝혀졌다. 그렇기 때문에 영재 판별에서는 양적 연구로만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며, 특히 문학 창작 영재와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한 것이다. 강승희·김정섭(2003)에 따르면, 지적능력과 학습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반드시 내용 이해나 표현 영역까지 우수한 자질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12) 문학의 갈래 중 특히 시가 문학영재들의 독특한 성향과 개인의 열정을 분출하

시간을 통해 시와 상상력, 창의력, 직관력, 감수성, 형상화 등의 관계와 함께 시 창작 방법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하였으며, 가능한 학습자들에게 한해서 산출물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습자들에게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시를 창작하기 위한 자신의 사고 과정을 함께 적도록 하였다. 산출물을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형식보다는 사고 과정에 초점을 두고 평가하려고 하였으며, 시적 상상력, 창의력, 직관력, 감수성, 형상화 능력 등을 그 기준으로 삼았다. 이들은 시를 창작할 때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¹³⁾ 물론 이들 모두 시적 언어로 표현될 때에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언어-문학영재들의 잠재능력의 현실화를 촉발시키는 요소가 바로 상상력과 창의력이며, 이들은 글에 생명력을 불어 넣고 활력을 주는 요소이다. 상상력은 적당한 자극과 동인이 제공되면 효과적인 산출물로 나타날 수 있다. 장창영(2009)에 따르면 이러한 상상력은 내면화 단계를 거쳐 체득한 자신의 경험들을 결합시켜 가치 있는 소재로의 전환을 모색할 때 작용하며, 여기에 독자적인 개별 창의력이 가미됨으로써 소통의 확장과 쌍방향의 정서적인 교감이 이루어진다. 시적 능력이 서사 능력과 큰 차별화를 이루는 이유는 정서적인 영역, 즉 감수성과 직관력, 영감을 바탕으로 삼기 때문인데, 언어-문학영재에게 감수성과 직관력은 대상에 대한 의미 심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요소이다. 감수성과 직관력을 적용하여 의미 심화의 과정을 거치면 ‘여름’이 단순히 더운 계절이 아니라 ‘여름은 활력이다.’, ‘여름은 살아 있다.’, ‘여름은 풋살구같다’와 같이 구체적이고 다양한 의미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다.

기에 가장 적합한 문학 장르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장창영(2009)의 논의가 참고가 되었다.

- 13) 시에 근거를 둔 시적 언어 능력은 상상력, 창의력, 감수성과 직관력, 형상화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는 점에서 영재들의 비범한 언어능력을 구체화하고 검증하는 데 유효하다. 장창영(2009), 311-312쪽.

<예 자료1> 시 창작 수업 자료 예시

<p>연상적 상상을 통한 시 쓰기</p> <p><수업 목표>특정한 단어를 제시하고 이로부터 떠오르는 감각이나 경험들을 자유롭게 연상하여 시적 언어로 표현한다.</p> <p><수업 내용></p> <p>1. 연상이란? 어떤 사물을 보거나 듣거나 생각할 때, 그와 관련 있는 감각이나 사물이 머리에 떠오르는 일.</p> <p>2. 연상적 상상의 과정 예시</p> <p>(1) 떠올린 사물: 선풍기</p> <p>(2) 모습의 형상화: 회전, 더위, 날개</p> <p>(3) 상상을 통한 이미지화(비유)</p> <p>더위: 풀무질로 일군 불씨 선풍기의 날개: 시퍼런 칼날 한낮의 더위: 한 접시 채질해 놓은 더위 선풍기의 회전: 무엇인가를 부정하면서 고개를 도리질치고 있는 모습 연상</p> <p>3. 예시작품</p> <p><선풍기>-박진환</p> <p>풀무질로 일군 불씨 땀별에 적셔 시퍼런 칼날 갈아 날 세운 후 한 접시 더위를 채질로 썰어놓고 '이맛이 아닌데 아닌데'라며 온 종일 도리질만 쳐대고 있다.</p>
<p>재생적 상상을 통한 시 쓰기</p> <p><수업 목표>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기억을 떠올려 정서를 묘사하고, 이를 시적 언어로 표현한다.</p> <p><수업 내용></p> <p>1. 재생적 상상이란? 과거에 겪었던 이미지가 그대로 다시 나타나면서 떠오르는 생각으로, 재생적 상상을 통해 시를 짓는다는 것은 어떤 경험이나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서나</p>

사고를 시적장치(비유, 이미지, 리듬, 어조 등)를 통해 양식화 하는 것이다.

2. 재생적 상상을 통하여 시를 짓는 과정

시의 재제를 선택→ 상상력을 동원하여 재제가 지니고 있는 여러 이미지와 상징적 의미 연상→시상 전개를 구상→집필→되고

3. 시 창작 이론으로 본 재생적 상상

상상력을 통해 이미지를 인식하는 과정이다.

시인은 무의식 속의 기억을 의식으로 전환(상상력 imagination)



이미지의 다발(이미저리 imagery)로 인식



이미지(image)로 정착

4. 예시작품

<주남저수지에서> -김명옥

잔잔한 수면 위로 검은 점들이 직선으로 앉아있다.

잠시 빌려 쓴 망원경 안으로

청둥오리, 고팡오리 떼가 순간 몸을 부풀린다.

강줄기를 따라가며 육안에 잡히는 맑은 물살소리

제두루미 한 쌍이 정겨움을 주고받는다.

방금 도착한 연하장을 슬며시 빠져 나온 걸까

황량한 개펄에서 휴식을 펼치던 큰 기러기떼

수직으로 굽는 무수한 날개짓

일제히 하늘을 가르며 솟구쳐 오른다

겨울이 꽃힌 빛 바랜 언덕 위로 익명의 사람들이

엇갈리며 걸어가는 사이

멀리 노랑부리저어새를 타고 세월을 쉼는다.

2. 시 창작 수업 결과

학생들마다 시적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에 차이가 있으므로 수업 과정 중에 관찰을 하였으며, 이 가운데 앞선 체크리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시 창작에도 재능을 보이는 학생을 발견하였다. 해당 학생은 [학생 2], [학생3], [학생5], [학생6], [학생8], [학생10], [학생13] [학생14]이며, 이들의 시 창작 결과물 중 일부를 예로 제시한다. 예시작품 모두 시적 언어로 형상화하는 능력은 다소 부족하지만,¹⁴⁾ 시 창작 교육을 따로 받

아 본 적이 없는 학습자들이 퇴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업 시간 중에 이 정도 수준의 작품을 창작해 내었다면 이번 연구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¹⁵⁾

<예 자료2> 학생 창작물 예시1

[학생 3]의 작품	[학생 14]의 작품
회색공간을 벗어난 아이는 기대 가득한 마음으로 초록공간에 발을 들이네// 처음 보는 까만 도화지의 수많은 보석들에 깜짝 놀라고// 블랙홀처럼 마음을 끌어당기는 만질 수 없는 보석들에 가슴이 두근두근// 계속 머물고 싶지만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아이는 아쉬운 마음을 남기며 발걸음을 돌리네// (중략)	<홀로서기> 쓸쓸한 발걸음으로 버스에 올라선다. 창문을 열어 바깥 제 1전시관을 구경한다.// 무거운 표정으로 변화가에 내린다. 가방을 고쳐 메고 바깥 제 2전시관에 들어선다.// 사람들이라는 작품들을 감상하다. 전시관 내에 있는 'D'카페에서 핫초코를 사 든다.// 핫초코를 뜨거운 핫초코를 한 모금씩 마실 때마다 컷가에 흘러나오는 음악이 내 심장을 두드린다.// 나는 지금 암묵적 흐름을 거스르는 중이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하듯이, 언어가 강물을 거슬러 오르듯이.....// 핫초코를 다 마셨을 땐 이미 나 혼자뿐이었다.

- 14) 언어-문학영재들이 쓰는 글은 미적 완성도와 형상화가 미흡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언어-문학영재들은 언어에 탁월한 감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미적 완성도 개념은 미흡한 상태라서 스스로 조율하고 검증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잠재능력과 표현능력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어휘의 적절성 여부, 발상의 참신성, 표현력의 다양성, 의미영역 확장 가능성’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장창영(2009), 328-239쪽.
- 15) 상상력의 작용에 따른 시적 표현 과정을 장창영(2009)의 논의에 따라 ‘인식의 시발점→과거 경험과 결합(진행과정중)→일부 변형→1차 정리(습작)→2차 정리(퇴고)→창작 발표’의 6단계로 본다면 이들 작품은 1차 정리의 단계에 있는 것이다.

<p>그리고 조금씩 지워갔다네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던 반짝이는 보석들을//</p>	<p>이 넓은 전시관엔 음악소리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 제 2 전시관을 벗어나 버스에 올라선다. 제 1 전시관을 지나 집으로 가는 지금 난 제 2전시관에 남겨 두고 온 쓸쓸함이라는 친구를 떠올리며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안녕, 잘 있어.”</p>
---	--

[학생3]의 경우 과거 도시와는 매우 대조적인 시골 어딘가에 가서 밤하늘의 별을 보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몸소 체험한 경험이 있는 듯하다. 실제로 이 학생은 섬진강 근처에 놀러갔던 적이 있으며,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 특히 인상적이었던 별이 많이 보이는 하늘에 주목하였다. 회색 공간(도시)과 대비되는 초록 공간(시골)에 있는 밤하늘은 화자에게는 낯선 공간이며, 게다가 그 밤하늘에는 화자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보석 같은 별들이 있다. 이는 분명 도시에서만 생활 해 온 고등학생 화자에게는 매력적인 경험이다. 도시로 돌아온 뒤에는 오히려 이 경험이 실망감을 더욱 심화시키지만, 시골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그곳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을 것이며, 앞으로 이 학생이 창작하게 될 다른 작품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변형되어 나타날 수 있다.

[학생14]의 경우 앞의 학생과는 달리 제목이 있고, 행과 연을 구분하고 있으며, 감수성을 자극하는 시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 학생의 경험은 혼자 남포동에서 놀다 온 일인데 이 학생은 버스를 타고 달리며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를 제 1전시관이라고 표현하였으며, 남포동을 제 2전시관으로 표현하였다. 외로움과 쓸쓸함으로 가득한 화자의 내면을 위로해 주는 건 결국 카페에서 마신 한 잔의 핫초코와 귤가에 들리는 음악소리 뿐이다. 그러나 이 조차도 화자의 근본적인 외로움을 해소해 주지는 못하며, 결국 인간은 혼자 남겨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뿐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학생의 경우 작품 속에 나타난 경험을 통해 외로움이 두

려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어린 학생의 경험이라고 보기에 다소 이른 감이 있는 이 작품은 문학적 감성과 표현에 대한 재능을 보여준다.

한편, 시 창작 활동을 통해서 앞선 다른 영역(체크리스트, 문학 성적) 어디에서도 상위자에 포함되지 못하였지만, 문예 창작에 소질을 보이는 학생들을 발견하였다.¹⁶⁾ 본고에서 이들의 작품을 모두 제시할 수는 없지만, 이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생의 문학 창작 영재로서의 가능성을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자에게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다. 이들 중 몇 가지 작품을 제시한다. 작품의 제목은 학습자가 직접 기록하여 존재하는 경우에만 제시하였다.

<예 자료3> 학생 창작물 예시2

<p>[작품1] 여름 날 푸른 잎에 어둠이 서렸다. 하늘을 바라보니 많은 별들이 잠든 산을 바라보고 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적막을 깨우는 개구리 소리가 외로움을 달래려 누군가를 찾는 듯 외롭다.</p>	<p>[작품2] 겨울바다 백사장에 앉아 그의 쓸쓸함을 바라보며 그를 불쌍하게 여겼지만// 누가 겨울바다를 춥고 쓸쓸하다고 했 던가 겨울바다의 지는 노을이 그를 덮어주고 있는데// 어느새 붉고 노란 따뜻함으로 덮인 겨울바다를 보다가 노을만큼이나 따스해진 눈빛으로 다짐한다.// 나도 누군가의 노을이 되고 싶다.</p>
<p>[작품3] <새벽에 끓여 먹는 라면></p>	<p>[작품4] <여름밤></p>

16) 해당 학생은 총 20명이며, 이들 중 가능한 대상자는 인터뷰를 시도해 보기로 한다. 이번 연구는 인문계열 고등학교 여학생 163명을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진행된 것이어서 학생들의 모든 가능성을 판별했다고 볼 수는 없다.

싹와 물받는 소리
 딸깍 불키는 소리
 보글보글 라면 익는 소리
 타닥 식탁에 냄비 놓는 소리
 췌-조용히! 아줌마 깨실라//
 소곤소곤 우리 대화 소리
 킁킁킁 우리 웃는 소리
 찰싹찰싹 웃음 참으려 때리는 소리
 찌-익 의자 끄는 소리
 췌-조용히! 아저씨 깨실라//
 말하지 않아도 즐거운 우리//

조금은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사각사각 나뭇잎의 숨소리가
 우리집 앞마당에 모이고//
 잠든 고양이의
 보드라운 심장소리가 들릴만큼
 평온한 밤이었다.//
 밤하늘에 흐르는
 수많은 별들의 오케스트라//
 바람의 발소리에 맞추어 시작된
 작은 우주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귀를 쫑긋 세우고
 어느새 잠이 깬 고양이의
 샛노란 눈동자 가득
 별의 목소리를 담았다.//
 수천킬로미터 떨어진 별이
 천천히 두 쌍의 눈동자 속으로
 떨어져 내린다.//
 마음속의 작은 떨림
 영원으로 가는
 사랑스런 나의 밤//

IV. 인터뷰 계획 및 결과

문학 창작 영재를 판별하기 위한 다면적 방법 중 하나로 대상자들과의 인터뷰를 계획하였다. 인터뷰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와 관련하여 꼭 필요한 과정이다. 대상자는 지금까지의 결과를 종합하여 4.1.체크리스트 고득점자, 4.2.체크리스트의 마지막 항목인 ‘장래 희망이 소설가, 시인, 국어 교사, 대학의 문학 관련 전공 교수 등이다.’에 ‘매우 그렇다’라고 표시한 학생, 4.3.문학 창작에 재능을 보인 학생, 그리고 4.4.문학 성적이 우수한 학생,

이상 네 부류로 선정하였다. 직접 대면하고 인터뷰를 시도하였지만 대부분의 대상자가 설문지 형태의 인터뷰를 원하여 설문지로 만들어서 개인별로 인터뷰를 요청했다.

1. 체크리스트 점수 상위자와 인터뷰

체크리스트에서 고득점을 했던 14명의 학생들 중 한 학기 동안의 수업에 임하는 태도나 그 결과물 등을 지켜 본 결과 총 13명을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도표6>에 나타난 네 가지 항목 중 체크리스트 외에 나머지 항목들 중 한 가지 이상에 중복 해당되는 학생들만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인터뷰 대상자는 총 13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들 중 12명이 인터뷰에 응해 주었다.

<도표6> 체크리스트 점수 상위자 중 인터뷰 대상자 선정 기준

구분 대상자	체크 리스트	작가 희망	문학 창작	문학 성적	비고
[학생1]	√	√			
[학생2]	√		√		
[학생3]	√	√	√	√	
[학생4]	√			√	
[학생5]	√		√		
[학생6]	√	√	√		
[학생7]	√			√	
[학생8]	√		√		
[학생9]	√	√			
[학생10]	√		√	√	
[학생11]	√	√			
[학생12]	√				인터뷰 대상에서 제외
[학생13]	√		√		
[학생14]	√		√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 모두 문학 창작에 흥미가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에 응한 12명의 학생 모두 문학 창작에 흥미가 많다고 답했으며, 시, 소설, 드라마 작가 등 작가를 희망한다고 답하였다.

[연구자]: 문학 창작에 흥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얼마만큼 흥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학생2]: 아주 많습니다. 책을 읽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학생3]: 만화 같은 것을 좋아하는데, 패러디 소설을 줄곧 써 왔습니다.

[학생4]: 창작을 자주 하지는 않으나 해야 하는 상황에 있으면 창작을 하면서 재미를 느낍니다.

[학생5]: 종종 소설을 쓰거나 독특한 내용을 구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학생6]: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학생7]: 아이디어가 없을 때만 빼고는 재미가 있습니다.

[학생10]: 아름다운 풍경을 보거나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시를 짓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시’라는 분야 자체를 좋아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학생11]: 문학 창작에 흥미가 많이 있습니다.

[학생14]: 매우 많이 있습니다.

둘째, 이들 중 다수는 작가를 희망하거나 글을 계속 쓰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가가 될 경우 시인보다는 소설가나 수필가, 방송작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5]: 작가가 된다면 소설이나 만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혼자서 현실과는 조금 거리가 먼 오묘한 이야기들을 주로 써 오고 있습니다.

[학생6]: 국문학과를 가고 싶고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부모님도 열심히 해서 국문학과에 꼭 가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학생7]: 작가는 아니지만 국어 선생님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학생8]: 드라마나 영화(시나리오)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모든 세대가 아무 거리낌 없이 즐길 수 있는 문화에서 힘든 생활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작고, 소박한 이야기로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싶습니다.

[학생9]: 방송작가가 되어서 예능 프로그램이나 MC들의 대본을 만들고 싶습니다.

[학생10]: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쓰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학생11]: 예전부터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방송이나 영화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드라마 작가가 되거나 영화 시나리오를 쓰고 싶습니다.

[학생12]: 드라마 작가나 소설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학생14]: 로맨스 소설을 짓는 것도 하고 싶고,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작품을 써 보고 싶습니다.

셋째, 이들 중 다수가 문학 관련 습작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문학 관련 습작을 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창작한 작품이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학생3]: 패러디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만, 완결된 작품을 낸 적은 없습니다. 문득 떠오른 소설과 판타지를 써보고 있지만 진전이 없습니다.

[학생5]: 문학 관련 습작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거의 쓰지 못하고 생각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습작은 계속할 예정입니다.

[학생7]: 아주 가끔씩 생각나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학생8]: 네. 지금 시기가 진로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는 때이다 보니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음악을 좋아해서 학생들이 모여 함께 밴드 생활을 하며 자신들의 꿈도 이루고 문체야로 낙인되었던 자신들을 당당히 사람들 앞에 나서게 하는 그런 성장 기입니다.(흔한 스토리이긴 하지만요.)

[학생10]: 교지에 많은 글을 쓰고 있으며, 각종 백일장 대회에 많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교지에 올릴 글을 한편 썼습니다.

[학생11]: 저 나름대로 이리저리 써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쓴 작품을 말씀드리기는 부끄럽습니다.

넷째, 이들 모두가 기회가 된다면 문학 창작에 관련된 공부를 해 보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문학 창작 공부를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혹은 앞으로도 습작을 해 나갈 생각입니까?

[학생2]: 문학 창작을 공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며, 습작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학생3]: 해보고 싶은 의사가 있으며, 잘 못쓰지만 습작을 할 생각입니다.

[학생4]: 전문적으로는 아니지만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학생5]: 기회가 된다면 해보고 싶습니다. 글 쓰는 것을 즐거우니까요.

[학생6],[학생7],[학생9]: 문학 창작 공부를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학생8]: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야기나 시를 써가며 내 생각이나 상상의 일들을 그려나가는 것이 재미있으니까요.

[학생10]: 대학에 가면 논문이나 리포트 등을 쓰고 싶기 때문에 논리적인 글을 쓰는 것을 배우고 싶지만, ‘시’에 대해서만큼은 공부할 수 있다면 열심히 할 것입니다.

[학생11]: 문학 창작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 혼자 하는 습작으로 작가가 되기엔 부족한 듯합니다.

[학생12]: 문학 창작 공부를 하게 된다면 해 보고 싶지만, 혼자서 문학 창작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학생14]: 문학 창작 공부를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굳이 정해 놓고 공부하는 것은 싫고 혼자서 실패를 통해 깨닫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자들의 문학에 대한 관심도는 남달랐다. 이들은 문학 창작에 매우 높은 관심과 흥미를 보였으며, 개인적으로 습작을 하고 있었고, 대다수가 장래희망도 작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학의 위기, 작가의 소멸이라 주장하는 문학계의 인식에 매우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결과이다.

2. 장래희망이 작가인 학생 인터뷰

‘장래 희망이 소설가, 시인, 국어 교사, 대학의 문학 관련 전공 교수 등이다.’에 ‘매우 그렇다’라고 표시했으나, 앞선 4.1.체크리스트 점수 상위자에서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학생이 세 명이 더 있었다. 그러나 이들과 대화를 해 본 결과 이들은 학기 초와 달리 작가가 되는 것에 회의적이었으며, 이들 중 한 명만이 작가의 꿈을 지속하고 있었고, 인터뷰에 응해 주었다. 이하 [학생15]로 통칭한다.

[연구자]: 작가가 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생15]: 재미있는 소설이나 드라마를 보면, 나도 글이나 시나리오를 써서 감동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연구자]: 어떤 작가가 되고 싶습니까?

[학생15]: 자신이 개성을 담고 현실을 반영할 줄 아는 현실적이고 사회발적인 소설을 써서 세상에 내고 싶습니다. 냉정하게 허를 찌르는 소설가가 되고 싶습니다.

[연구자]: 자신이 생각하는 스스로의 성격은 어떤가요?

[학생15]: 활발하고 감성적입니다.

대상자의 성격적 특성, 작가가 되고 싶은 이유, 작가가 되었을 때 바라는 이상향 등에 대한 질문을 계획하고 인터뷰를 시도하였으나, 대상자 중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학생이 거의 없다는 사실 자체가 단순히 작가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만으로는 문학 창

작 영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¹⁷⁾

3. 문학 창작에 재능을 보인 학생 인터뷰

앞서 체크리스트에서 선정된 아이들을 제외하고 ‘시 창작 수업’에서 문학 창작에 재능을 보인 학생이 총20명 있었다. 이번 연구와 관련하여 가장 의미 있는 결과를 줄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두를 인터뷰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이들 중 12명만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이하 [학생16]~[학생27]로 통칭하며, 이들과의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두는 아니지만 다수가 문학 창작에 흥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문학 창작에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문학창작에 얼마만큼 흥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학생16]: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데 재미를 많이 느끼며, 생각이 많이 떠오릅니다.

[학생17]: 그냥 보통정도입니다.

[학생18]: 쓰지는 않지만 작품을 창작하기 위한 생각은 많이 합니다.

[학생19]: 조금 있는 정도입니다.

[학생20]: 시 짓는 것과 이야기 꾸미는 것에 흥미가 많습니다. 제가 지은 짧은 글귀를 써 놓은 수첩이 있고, 중학생 때도 공책에 이야기를 짓기도 했으며, 지금은 컴퓨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생21]: 문학 창작에 대한 흥미라기보다는 혼자 일기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학생23]: 그냥 평생 살면서 책 한권쯤 쓰고 싶습니다.

17) 이들에게 적절한 비전을 심어주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는 한 작가가 되고 싶은 많은 학생들이 취미로 글쓰기를 계속 할지는 모르나 직업으로서 작가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학생24]: 창작 기회가 생기면 하는 편이나 스스로 창작활동을 하는 편은 아닙니다.

[학생26]: 잘 쓰지는 않지만, 글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흥미 있는 책에 푹 빠져 줄곧 읽고, 자유롭게 창작해서 글 쓰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학생27]: 문학 창작에 대한 관심은 중상정도입니다.

둘째, 장래희망으로 작가가 되고 싶은 학생도 대다수 있었으며, 역시 시인보다는 소설가나수필가, 방송작가를 희망하였다.

[연구자]: 진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작가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연구자]: 작가가 된다면 어떤 작가가 되고 싶습니까?

[학생18]: 작가가 되고 싶은 생각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외국의 영화를 번역해서 더빙이 쉽도록 우리말로 다시 대본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학생19]: 문예창작과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작가가 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작가가 된다면, 시를 짓거나, TV 방송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학생20]: 방송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직업으로 예능 방송 작가를 하고 취미로 수필을 쓰는 작가가 되어 책을 내고 싶습니다.

[학생21]: 만약 작가가 된다면 일상생활을 쓰는 수필가가 되고 싶습니다.

[학생23]: 작가가 된다면 소설가가 되고 싶습니다.

[학생24]: 작가가 될 수 있다면 하고 싶습니다. 진로는 방송 관련 쪽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가가 된다면 라디오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학생26]: 기회가 된다면 당연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장르를 불문하고, 사람들의 일상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는 이야기나 상상 속에서 지어낸 자유로운 글을 쓰고 싶습니다.

[학생27]: 아직 진로에 대해서는 생각중이며, 작가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작가가 된다면 방송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셋째: 성격을 묻는 질문에서 이들 대부분이 흥미 있는 것에만 집중하고, 외향적이며, 감성이 예민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⁸⁾

[연구자]: 자신이 생각하는 스스로의 성격은 어떤가요?

[학생16]: 활발합니다.

[학생18]: 번덕이 심하고 한번 한 일을 오래 지속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흥미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할 자신이 있습니다.

[학생19]: 감수성이 풍부하고 감정기복이 많고 생각을 많이 하는 성격입니다.

[학생20]: 활발하고 예민합니다.

[학생21]: 활발합니다.

[학생25]: 관심 있는 것에만 몰두하고 눈치가 빠른 편이며, 외향적입니다.

[학생26]: 얌전히 있는 것보다는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한번 집중하면 그것을 마칠 때까지 그것만 잡고 있습니다. 단, 제가 흥미 있는 것만 집중해서 공부는 잘 하지 못합니다.

넷째, 이들 중 8명의 학생이 진로 검사 결과 예술형이 높은 순위에 나타났다.

[연구자]: 진로 검사의 결과를 높게 나온 순서대로 적어 주세요.

[학생16]: 예체능계열-사회복지계열-심리계열

[학생17]: 예술형-기업형-사회형

[학생18]: 사회형-예술형-관습형

18) KAGE 영재학술원(<http://www.youngjae.net>)에서 제시한 문학 영재의 특성에 따르면, 문학 영재는 감정이 풍부하거나 예민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피르토(Piirto, J.(1992). Understanding Those who create. Dayton, OH:Ohio Psychology Press.)가 제시한 탁월한 성취를 나타낸 작가의 공통적 특성에도 고독한 경향이 있어서 정서적 후원이 필요하며,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내용이 있다.

[학생19]: 예술형-사회형-기업형

[학생20]: 예술형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학생22]: 언어-문학 계열, 사범계열 순으로 나왔습니다.

[학생23]: 예술형이 가장 높게 나왔고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학생27]: 사회형-예술형-탐구형

이들은 전형적인 예술가형 성향을 많이 지닌 학생들이다. 성격과 진로 검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 해 주며, 이러한 특성이 문학 창작에서도 남들보다 창의적인 발상을 일으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학습자들의 전반적인 성향을 대변하듯, 이들 대다수는 작가가 되더라도 방송작가를 희망한다. 영상세대라 불리는 이들의 성향을 그대로 반영하는 결과이다.¹⁹⁾

4. 문학 성적이 우수한 학생 인터뷰

이와는 별도로 연구 과정에서 체크리스트 판별 결과와 상관없이, 문학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들은 석차등급 상위 1,2등급에 속하는 학생들로 총 5명의 학생이 인터뷰에 응해 주었으며, 이하 [학생28]~[학생32]로 통칭한다.

첫째, 대상자들 모두 문학 과목에 대한 흥미는 높다.

[연구자]: 문학 성적이 좋은 편인데 다른 과목보다 문학에 대한 흥미가 높은 편입니까?

19) 오늘날 학생들은 문자매체에 의한 문학의 수용보다는 영화나 TV드라마와 같은 영상매체를 통해 문학적인 경험이나 감동을 얻고 있다. 이른바 영상세대라고 불리는 오늘날의 청소년은 갓난아기 때부터 TV나 드라마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들은 소설책보다 TV드라마를 좋아하며, 책방에 가는 대신 가까운 비디오 대여점을 찾아 영화 테이프를 고른다. 박기범, 「영화의 문학 교육적 수용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52-53쪽.

[학생28],[학생31],[학생32]: 네
[학생29]: 다른 과목보다는 있는 편입니다.
[학생28]: 흥미가 있습니다.

둘째. 작가가 되고자 하는 학생은 한 명도 없다.

[연구자]: 작가가 되어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까?
[학생28] ~ [학생32]: 아니요.
[학생28]: 외교관이 되고 싶습니다.
[학생29]: 안정적인 선생님이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학생32]: 사회학과나 유아교육과 등에 가고 싶습니다.

셋째. 지속적으로 글을 쓸 가능성도 없다.

[연구자]: 전문적인 작가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계속 글을 써볼 생각이
있습니까?
[학생29] ~ [학생31]: 아니요 없습니다.
[학생28],[학생32]: 예.
[연구자]: 혼자서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까?
[학생28] ~ [학생31]: 아니요.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의 대답은 단답형이 많으며, 다른 인터뷰 대상자들보다 호응도도 떨어졌다. 다섯 명만의 의견으로 결론을 내리기에 부족한 면이 있지만 이들의 생각을 종합해 보면, 문학 과목에 대한 흥미는 있지만, 작가가 되고자 하는 데에는 뜻이 없으며, 문학 창작 공부를 지속적으로 할 생각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학 성적이 높다고 해서 문학 창작에 대한 흥미나 관심이 높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²⁰⁾

20) 이들은, 문학 성적은 우수하지만, 앞선 인터뷰 대상자들에 비해 문학 창작에 대한 관심도는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문학 과목의 학업성취에 대한 열의가 높은 학생들인 것이다. 이들은 다른 교과목의 성적도 우수할 가능성이 많다.

V. 판별 가능성에 대한 제언

교육은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는 일이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이는 영재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에서 마찬가지일 것이다. 더군다나 영재로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아동들이 자신의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²¹⁾ 문학 창작 영재도 이점에서 예외가 아니며, 이들에게도 개인의 뛰어난 자질과 재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주어져야 한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이런 학생이 문학 창작 영재이다’라는 영재 여부를 판별하는 평가를 내릴 수는 없지만, 다음과 같이 문학 창작 영재로서의 가능성을 지녔다고 판별할 수 있는 학생들은 발견하였다.

<도표7> 최종 판별 대상자

구분 대상자	체크 리스트	문학 창작	장래희망 작가	인터뷰 결과	문학 성적
[학생3]	√	√	√	√	√
[학생5]	√	√		√	
[학생6]	√	√	√	√	
[학생8]	√	√		√	
[학생10]	√	√		√	√
[학생14]	√	√		√	
[학생19]		√	√	√	
[학생20]		√	√	√	
[학생26]		√	√	√	

21)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는 지식 생산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사회이다. 이처럼 고도의 정보 가치가 요구되는 사회에서 영재교육은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간을 육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이는 영재 개인으로 볼 때에도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아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구자역 외, 『영재교육과정 개발 연구(II)-고등학교 영재교육과정 시안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0, 머리말에서.

이들을 판별하기까지의 기준이 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체크리스트’는 1차 체크리스트에 판별 결과 고득점을 한 학생을 의미하며, ‘문학 창작’은 시 창작 수업 과정에서 재능을 보인 학생을 의미하며, ‘장래희망 작가’는 체크리스트나 인터뷰에서 장래 희망이 작가라고 밝힌 학생을 의미한다. ‘인터뷰 결과’는 인터뷰를 통해 문학 창작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고, 관련 습작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작업을 해 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학생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문학 성적’은 문학 지필고사 기준 상위 1,2등급 안에 든 학생을 의미하며 이는 참고 자료 정도로 표에 제시하였다.

최종 선발된 학생들을 보면, 이들을 판별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 두 가지는 문학 창작능력과 인터뷰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²²⁾ 체크리스트에서 판별되었거나 문학 창작에 흥미는 있으나, 문학 창작에 재능이 보이지 않는 경우 문학 창작 영재라 할 수 없으며, 문학 창작에 재능이 보이나 문학 창작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는 학생도 제외되어야 한다.²³⁾ 이번 연구를 통해서 국어성적이나 문학 성적은 문학 창작 영재를 판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 이는 문학 성적 우수자들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1차 판별과정에서부터

22) 이는 문학 창작 영재성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심리적 요소와 실체적 요소를 중시해야 할 것이라는 제언을 던져 준다. 최지현(2000)은 언어문학영재성을 경험적, 기능적, 심리적, 실체적 요소를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이 중에서도 잠재성 요인으로서 기능적, 심리적 요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였다. 경험적 요소란 ‘학습자를 둘러싼 유무형적 체험 환경과 체험의 대상, 기조의 체험을 통해 얻게 된 지식 등’을 말하고, 기능적 요소란 ‘수용된 정보를 가공하고 이를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정신적 기제’를 말하며, 심리적 요소는 ‘외계의 사상에 대해 호기심과 충동, 곧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게 되는 것’을 그리고 실체적 요소는 ‘구체적이고 형상적인 대상을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즉, 문학 창작 영재의 경우에는 심리적 요소와 함께 구체적인 산출물로 나타나는 실체적인 요소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23) 언어-문학 영재들 사이에서는 언어능력과 관련한 주요 속성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 속성들이 일정 기간 이상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경우 언어-문학 영재의 고유 특질로 규정받을 수 있다. 장창영(2009), 315쪽.

국어 성적만이 아닌 체크리스트 판별법이나 개별적 인터뷰, 문학 창작 결과물을 활용한 판별을 시도한다면 판별의 타당성이 높아질 것이다.²⁴⁾ 결국 문학 창작 영재는 타고난 재능과 함께 문학 창작에 대한 흥미가 높으며, 관련 습작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문학 창작을 해 나갈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 되어야 한다. 이들의 선천적 재능을 판별할 수 있는 객관적 프로그램의 개발은 미진하지만, 이들에게 문학 창작과 관련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문학 창작 영재로서 성장해 나갈 것이다.

이번 연구는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문학 창작 영재의 판별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연구한 결과물이지만, 그 검증까지는 충분히 이루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또한 대상자가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점으로 보아 영재 판별에서의 후천적 영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²⁵⁾ 마지막으로 문학 창작 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시 창작하기만 하였을 뿐 다양한 언어 형식으로서의 작품을 창작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문학 창작 영재의 판별과 교육의 방법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하

24) 문학 창작 영재로 판별된 학생 9명 중 6명이 체크리스트 고득점자이며, 이들은 문학창작이나 인터뷰 결과에서도 지속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별되었다.

25) 최지현(2008)의 연구에서도 언어문학영재성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번 연구와 같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학습의 영향을 일부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똑같은 학습을 했다고 하더라도 문학 적 감수성과 표현력은 다르며, 이에 선천적인 영향도 작용한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더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문학창작영재성은 후천적인 학습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문학영재성이나 문학창작영재성은 개념 정의에 계속적으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정의한 영재성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개념이므로 후천적 학습의 영향으로 능력이 향상된 경우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영재성의 판별시기에 관한 논란도 있을 수 있는데, 문학 영재의 경우 영재성을 판별하는 시기에 대해서 합의된 논의가 없으며, 영재 교육의 일반론으로 접근했을 때에도 영재성 판별 시기를 단정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인간의 영재성이 어느 순간에 불현듯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또 한 그 단계부터 시작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다. 지필고사 성적만으로는 판별하기 어려웠던 문학 창작 영재가 체크리스트, 문학 창작 관련 과제, 인터뷰 과정 등을 통해 판별 가능성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는 문학 성적 우수자 가운데는 문학 창작 영재로서의 가능성을 보인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과 비교했을 때 분명하게 드러난다. 국어성적 우수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판별하는 방법만이 최선책은 아니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문학 성적보다는 20문항으로 구성된 간단한 체크리스트가 문학 창작 영재를 판별할 수 있는 더욱 유용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즉, 판별 초기 단계부터 더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숨어 있는 문학 창작 영재가 많이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변두리 지역의 일반 인문계 여학생들에게서도 문학 창작 영재의 발견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이는 우리에게 발견되지 않은 문학 창작 영재가 더 많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져 준다. 반면에 현재와 같은 선발 방식은 대다수의 문학 창작 영재를 발굴하지 못한 채 놓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한 학교가 아닌 일반 인문계 학생 전체로 논의를 확대시킨다면, 더욱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한다면 최소한 단순히 영재가 되고 싶어 지원한 학생이나, 국어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영재교육원에서 문학 창작 영재 교육을 받는 문제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들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문학 창작 영재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심리적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심리적 요소가 실제적 요소로 발현될 때 이들이 판별될 수 있기 때문에 문학 창작 영재는 판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런 이유들을 핑계로 그동안 문학 관련 영재 교육 분야에서 판별 도구를 제작하는 데에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제로 이를 활용하여 판별하고 영재를 발굴하여 성장시키는 데에는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가시적인 성과가 적고, 판별이 어렵다고 해서

그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²⁶⁾

넷째, 문학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문학 창작 영재의 발굴과 성장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문학 창작 영재들은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데 소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학을 미적가치로 보는 시대의 대표 장르인 시나 소설보다는 해리포터와 같은 판타지 소설을 짓기를 바라며, 그것보다는 많은 관객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영화의 시나리오를 집필하게 되길 바란다. 이전의 문자 매체의 기능을 영상 매체가 대신한다 하더라도 이를 문학의 위기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문학에 대한 관점의 전환으로 받아들여야 문학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문학 창작 능력도 교육을 통하여 더욱 성장할 수 있다. 시 창작 수업을 통하여 시를 창작하는 능력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곧 문학 창작 영재도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영재로서 성장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해 준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문학 창작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학 창작에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발견하는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면, 대다수의 영재들은 발견되지 못한 채 자신의 재능을 재능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것이다.

관찰과 수행의 결과만으로 영재를 속단하기에는 이르다. 더욱 정교한 영재 판별 프로그램이 연구개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 다른 영재도 아닌 문학 창작 영재를 판별하기 위해 많은 비용과 인력을 들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문학 창작 영재로 판별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영재성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확신할 수 없지만, 이후로 다양한 갈래의 다양한 언어 형식으로 된 작품을 창작하는 수업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이들에게 문학 창작에 대한 관심을 더욱 고취시키고, 각종 문예 관련 백일장, 시나리오 공모전 등에 참가를 권장해 보고자 한다.

26) 이와 관련하여 영재교육 분야에서 질적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참고문헌

- 강승희, 「언어 영재와 일반 아동의 작문에 나타나는 이야기 구조와 언어적 창의성의 발달 및 차이」,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1.
- 강승희·김정섭, 「초등학교 언어영재 아동과 일반아동의 언어적 창의성 발달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16권1호, 2003.
- 구자역 외, 『영재교육과정 개발 연구(Ⅱ)-고등학교 영재교육과정 시안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0.
- 권순희, 「언어·문학 영재교육의 방향 모색을 위한 외국 사례 비교」, 국어교육128, 2009, 129-173쪽.
- 김홍원, 조석희, 김민수, 「인문사회 영재 판별 도구 개발 연구(Ⅱ)-언어 영재 판별 검사 도구 개발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2002.
- 박기범, 「영화의 문학 교육적 수용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박소영, 「문학 창작 영재의 판별과 선발 과정 연구」, 부산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8.
- 송인섭·한기순 공저, 『한국영재교육의 새로운 지평』, 학지사, (2008).
- 우한용, 「문학교육과 문학에 대한 관점의 전환」, 국어교육연구 제 40집, 국어교육학회, 2006, 137-160쪽.
- 윤희원, 「문학 영재 판별에 관한 기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3.
- 이경화외, 「영재의 지능, 창의성, 자아개념간의 관계 분석」, 『영재와 영재교육』 6권, 2007.
- 장창영, 「언어-문학영재와 시적 언어 능력」, 한국언어문학 제68호, 2009, 309-338쪽.
- 최인자 외, 「언어 재능 계발을 위한 ‘문학’ 심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

- 구],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교원대학교 교과교육공동연구소 연구 보고, 2004.
- 최지현·오교식, 「학습자의 창의적 학습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국어과 운영 방안」, 『교육발전』 19-2, 서원대학교 교육연구소, 2000, 21-76쪽.
- 최지현, 「언어문학영재성에 대한 정략적 판별 근거」, 『문학교육학』 27호, 2008.
- 현상길, 「문예 창작 영재 판별 도구 개발」, 서울교육, 여름호, 2005, 116-126쪽.
- Enid Zimmerman 편저, 강갑원, 김정희, 김혜숙 공역, 『예술·음악 영재 학생』, 학지사, 2008.
- Haward Gardener 지음, 김명희·이경희 옮김, 『다중 지능의 이론과 실제』, 양서원, 2000.
- Joseph S. Renzulli 편저, 이신동, 박명순, 박춘성 공역, 『영재판별의 동향』, 학지사, 2007.

<Abstract>

A Study on Possibility to Discern a Talented Creative Writer

Park, So-Young

When we try to discern the giftedness of a student it may be meant both gifted and acquired talent and the method may be differ in discerning talented students depending on to which side weight is to be placed. However, the current method, to discern gifted creative writers among the students putting into a paper and pencil evaluation again after being recommended as qualified students in the subject of national language, may have possibility of not being able to identify gifted students having its potential capacity or uniqueness. Also most of those students qualified based on the current method have a doubt to their vision as being a talented student of creative writer with lack of subsequent proper education. It may be noted that the forecast appears to be doubtable regarding possibility of sustained growth of the creative writers based on current identification method of it.

At present, domestic research on talented creative writer still remained in the rudimentary stage and there is few local articles in this respect to be referred to. Also, most of researches in this regard have been implemented against elementary school students or middle school students and none of such report could be found for high school students so far.

Education is intended to the growth of individual student and aimed

to develop individual potentials as much as possible. It may be no exception to the talented students of creative writers, as such opportunities and environment has to be provided for them as well in developing their outstanding talent and uniqueness. This study is the result of the research on the possibility to discern a talented creative writer in the academic high school based on preceded researches. Full verification in this regard has not been implemented yet properly so far; however, through this research certain positive progress has been obtained on the possibility regarding identification and growth possibility of gifted creative writers which may provide certain meaning to the education of the gifted creative writers.

Key Words : gifted student's education, education for gifted student of creative writer, education for gifted student of literature creative writer, possibility to discern gifted student, possibility to discern student of literature creative writer

- 논문접수 : 2010년 10월 30일
- 심사완료 : 2010년 11월 29일
- 게재확정 : 2010년 12월 8일